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9

## “우리도 함께 뛴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 책임·열정·도전정신으로 건강한 세상 만들기 질주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책임·열정·도전 정신으로 힘차게 달린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산 역사로 근로자들의 건강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직원들이

### 근로자 건강 지킴이 앞장

3·1 마라톤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1963년 근로자 중심의 ‘일과 사람과의 조화’를 목표로 설립된 공익기관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허브역할을 해왔다. 현재 전국 15개 산업보건센터에 900여명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건강진단, 체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사무실, 학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과 작업환경을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인간공학컨설팅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책임 지고 있는 만큼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책임(Responsibility)·열정(Passion)·도전(Challenge)’정신을 내세운 RPC운동을 전개하면서 직원들의 건강하고 열정적인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부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핵심비전인 RPC 운동의 일환으로 마라톤

동호회를 결성해 건강한 직장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자 건강지킴이’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3·1마라톤 대회 참가에 맞게 개선하는 인간공학컨설팅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가를 결정했다. 대회에 나서는 직원들은 환경위생부, 건강진단부, 보건관리부, 총무부, 분석검사실의 멤버들로 구성된 남·여 25명으로 전원 완주를 목표로 세웠다.

광주센타 김재웅 사무국장은 시간이 나는 대로 마라톤 멤버 25명과 협회 인근 어등산과 수완지구를 함께 뛰면서 체력을 다지고 있다.

### 어등산서 틈틈이 체력 다져



‘근로자 건강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직원들이 3·1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건강한 질주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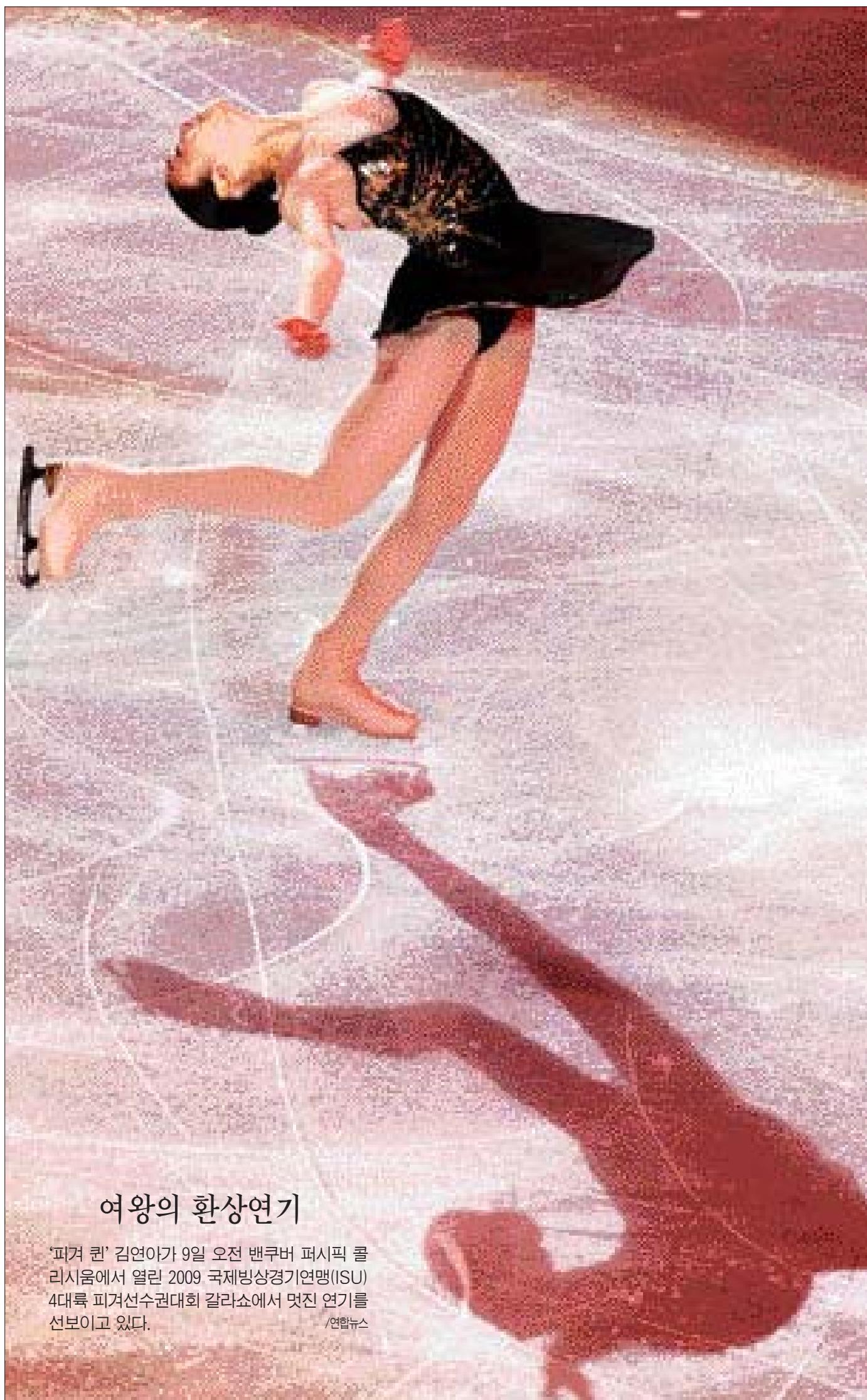
### 26~27일 산업위생 학술대회

하지 못 하는 직원들의 격려도 이어지면서 대회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다.

이들은 마라톤이 중심이 된 활발한 사내 분위기를 바탕으로 학술대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6~2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

후원으로 한국산업위생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가 열리게 돼 직원들은 어느 때보다 분주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또 산업보건을 선도하는 협회의 위상을 알리기 위한 설레임으로 회원들은 3월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여왕의 환상연기

‘피겨 퀸’ 김연아가 9일 오전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에서 열린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갈라쇼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밴쿠버 영광, LA서 한번 더”

### ‘피겨퀸’ 김연아 전훈지 토론토 복귀

### “내달 세계선수권 트리플 루프 성공”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우승한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 입학예정)가 쉴 틈도 없이 세계선수권대회(3월23~29일, 미국LA) 정상 도전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김연아는 9일(한국시간) 오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 실내빙상장에서 치러진 4대륙 대회 갈라쇼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밴쿠버에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하지만 시니어 무대 데뷔 이후 처음 도전한 4대륙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연아는 달콤한 휴식의 유혹을 떨치고 ‘LA 영광’을 생각하며 최근 상승세에 오른 스케이팅 감각을 이어가려고 훈련을 선택했다.

김연아는 10일 밴쿠버 공항에서 출발해 5시간을 날아서 전지훈련지인 토론토에 복귀한다. 하루 이틀 쉴 법도 하지만 김연아는 도착한 다음 날부터 크리켓 클럽 빙상장에서 곧바로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다.

◇자신감-상승세 ‘최고의 소득’=김연아는 4대륙 대회를 준비하면서 깊진 소득을 얻었다. 바로 암점으로 지적돼 온 트리플 루프를 오랜만에 실전에서 구사하면서 ‘트리플 루프 거부감’에서 벗어난 일이다.

김연아는 대회를 마치고 나서 “트리플 루프 실수를 했어도 시도 자체는 좋은 경험이다. 다음에는 더 자신 있게 뛰겠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달 세계선수권대회를 겨냥해 트리플 루프의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일만 남았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매 훈련 시간마다 트리플 루프를 시도했고, 대부분 깨끗하게 착지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완성의 단계지만 마지막 2% 부족한 자신감을 채운다면 세계선수권대회 생애 첫 우승의 기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림픽 적응도 완벽=9일 치러진 4대륙 대회 갈라쇼에서 장내 아나운서는 연기를 앞두고 준비를 하던 김연아를 향해 “캐나다에서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훈련하는 김연아”라고 소개해 캐나다 피겨 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오서 코치는 1984년 사라예보올림픽과 1988년 캘거리올림픽에서 두 대회 연속 남자싱글 은메달리스트에 올랐고, 198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던 캐나다의 대표적인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연합뉴스

# “제2 축구인생 … 올 목표는 득점왕”

### ‘상무 불사조’로 변신한 최성국 선수

“기회의 땅” 광주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로 다시 태어나겠다.”

‘상무 불사조’로 변신한 최성국(27)이 9일 전지훈련지인 광양에서 첫 팀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23일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이후 48일 만에 군화 대신 축구화를 신었다.

울산 현대를 거쳐 지난 시즌까지 성남 일화에서 활약했던 최성국은 청소년 대표팀을 시작으로 부산 아시안게임, 아테네 올림픽,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태극 마크를 달았던 공격수다. 172cm의 단신에도 폭발적인 스피드와 폭발력으로 그라운드를 종횡 무진하며 ‘비를 마라도나’로도 불렸다.

그러나 개인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는 수식어 속에 너무 어린 나이에 주목을 받으면서 성장이 멈췄다는 호된 평가를 받으며 긴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지난 시즌 한·일 올스타전인 조모컵에서 MVP를 거머쥐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기도 했지만 군입대를 두고 성남 김학범 감독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시련의 시기를 보낸

을 준비하면서 팬들에게 선보일 ‘경례’ 글 세레모니도 준비해 뒀다.

주위와 30km 행군이 힘들었다는 군인 최성국은 4살 배기리를 둔 가장이기도 한다.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더 큰 미래를 위한 거름으로 삼을 생각이다.

“좋은 기회인 만큼 예전의 나를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 그리고 내년 월드컵에도 꼭 나가고 싶다. 조금만 방심하면 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배웠다. 그만큼 나 자신이 경쟁자로 삼아 뛰면서 대표팀, 해외진출의 꿈을 이루겠다.”

거침없던 플레이에 노련미를 더해 가고 있는 최성국. 자신이 상무에서 머물게 될 2년 동안 광주 프로축구단 참단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비를 마라도나’의 제 2의 축구 인생이 시작됐다.

/광양=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